

기초자치단체의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 석 환 · 김 성 수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방정부와의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의 객관적 현황 분석,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잠재변수인 영향요인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서열로짓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현황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었고, 실적이 저조한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도 남아공과 이집트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은 낮고, 우선 추진해야 할 교류는 자매결연과 문화·체육교류이며, 단체장과 함께 공무원,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잠재변수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판별타당도는 우수하고 수렴타당도는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열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는 공무원이 인력 전문성과 교류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기초단체의 규모가 크고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교류의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국제교류, 아프리카, 교류 의향

1. 문제의 제기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정치, 외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026).

주저자: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김성수, 한양대학교 교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의 전 지구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커다란 역할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2020년 12월 현재까지 세계 84개 국가의 1,311개 지방정부와 1,74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학술적 관심을 이끌어냈고,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이나 국제교류 영향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교류를 이해하고 활성화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학술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활성화 방안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를 분석하고, 전담 조직의 확보, 안정적 예산의 확보, 국제교류 전담 인력의 확충, 담당 인력 전문성 제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예, 김부찬 외, 2007; 박용길, 2003; 성태규·이재현, 2007; 유병선, 2018; 이성근·서동수, 2008). 다음으로, 영향요인 연구는 국제교류 예산비율, 재정능력, 전담 조직, 중앙정부 지원, 전문기관 협조, 단체장 특성, 규모 등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수준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예, 송하중 외, 2010; 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01; 이정주 외, 2013; 이정주·최외출, 2003; 정명은, 2012; 하영수, 2001).

그러나 국제교류에 관한 경험적 선행연구는 주관적 인식 자료 또는 객관적 통계자료에 대한 배타적 의존, 교류의향에 대한 분석 간과, 교류 미흡 지역에 대한 연구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국제교류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교류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하고 교류 다변화를 주장하였지만(예, 성태규·이재현, 2007; 이정주·최외출, 2003; 이정주 외, 2013; 이주호 외, 2007; 하혜영·이정진, 20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는 객관적 통계자료(예, 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 인식 자료(예, 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를 배타적으로 활용하였는데,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자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는 교류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예, 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과 객관적 교류 실적(예, 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은 분석하였지만, 교류의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방정부와의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륙별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아프리카와 국제교류를 체결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 미교류 이유, 교류의 중요성 및 필요성, 우선 교류 추진 분야, 교류 추진 주체 등에 대한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셋째, 교류의향 영향요인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의 신뢰도는 크

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류의향 영향요인 모형은 종속변수인 교류의향의 측정수준에 적합한 서열로짓 회귀분석(ordinal logit regression analysis)으로 추정하였다.

II.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1.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의의

국제교류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학술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의는 김판석(2010)의 정의이다. 그는 국제교류를 “개인·집단·기관·기업·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간에 우호적으로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주체간에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협력관계(cooperative relation)”로 정의한다(김판석, 2000: 10). 그런데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핵심 주체 중 하나로 등장하기 이전에 국제교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이었다. 국가가 주체인 국제교류가 외교(diplomacy)인데, 외교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간 법률적 계약사항의 결정으로 정의된다(김재근·서인석, 2012: 413; 이주호 외, 2007: 21). 따라서 다양한 주체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하는 국제교류가 외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가 학술논문이나 정부의 공식문서에 자주 등장한다. 공공외교는 외교와 차별화를 시도한 개념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한다(「공공외교법」 제2조). 주체, 목적, 내용 측면에서 국제교류와 공공외교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과 우호협력(friend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매결연은 외국 지방정부와 행정, 경제, 문화, 인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약속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송두범, 2004: 1; 우양호·이정석, 2010: 39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69). 한편,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이전 단계”(김형수, 2017: 44),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으로 정의하여 국제교류의 초기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우선 우호협력을 통해 친선 및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형수, 2017: 44; 우양호·이정석, 2010: 397). 또한 우호협력은 국제교류의 단계

적 과정에서 외국의 지방정부와 이중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김형수, 2021: 86).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은 추진절차 및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반면, 우호협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자매결연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해 2003년까지는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었으나, 2004년 규정의 폐지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지방정부와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교류 분야는 행정교류, 경제·통상 교류, 문화·예술교류, 청소년 교류, 상징사업 등으로 분류된다(권경득, 1999; 김재근·서인석, 2012: 416). 행정 교류는 공무원의 연수 및 파견 등을 통해 인력개발, 행정역량 강화, 상호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활동이며, 경제·통상 교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투자유치, 국제전시회나 박람회의 참가 및 개최, 해외시장개척단 설명회 및 파견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예술 교류는 주민의 상호신뢰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공연, 축제, 전시회, 친선경기 등을 의미하고, 청소년 교류는 세계 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증진을 위한 스포츠 교류, 친선방문, 유학생 지원 등의 활동을 지칭하며, 상징사업은 상호공원조성, 거리명명식, 명예박사학위 수여, 자매도시 전시관 운영 등을 포함한다(김재근·서인석, 2012: 416-417).

2. 지방정부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정부 국제교류에 대한 선행연구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외국 지방정부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국제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급격한 증가는 자연스럽게 학술적 연구로 이어졌다. 이하에서는 지방정부 국제교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국제교류 영향요인 연구, 기타 연구로 분류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활성화 방안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객관적 통계자료 또는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활용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활성화 방안 연구는 연구의 초점에 따라 연구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개선방안 역시 연구별로 매우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조직, 인사, 예산, 제도적 기반,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 분야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제교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확보(김부찬 외, 2007; 박용길, 2003; 유병선, 2018)가 제시되었고, 예산 분야에서는 안정적 예산의 확보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김부찬 외, 2007; 이성근·서동수, 2008; 전병관, 2009). 인사 분야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제교류 전담 인력의 확충(박용길, 2003; 성태규·이재현, 2007; 유병선, 2018; 이우권, 2009)과 담당 인력 전문성 제고(김부찬 외, 2007; 김형수, 2017; 이성근·서동수, 2008)가 주로 제시되었다. 제도적 기반 차원에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김형수, 2017; 유병선, 2018; 이성근·서동수, 2008; 이우권, 2009), 국제교류 관련 조례의 정비(김형수, 2017; 이성근·서동수, 2008),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김판석, 2000) 등이 주요 개선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강화(이성근·서동수, 2008)와 교류지역의 확대(성태규·이재현, 2007)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영향요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향요인 연구는 분석단위, 분석방법, 종속변수의 측정, 연구결과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요인 연구의 분석단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이고, 분석방법으로는 모두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영향요인 연구는 종속변수인 국제교류를 교류수준과 교류성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국제교류의 수준은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송하중 외, 2010; 우양호·이정석, 2010; 하영수, 2001)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객관적인 교류건수(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로 측정되었다. 교류성과 역시 자치단체 수준의 교역량,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재정자립도 등의 객관적 통계자료(이정주·최외출, 2003)나 교류성과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이정주 외, 2013; 이정주·최외출, 2003)에 기초하여 측정되었다. 영향요인 연구의 결과는 종속변수의 측정방법에 따라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류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는 국제교류 예산비율(하영수, 2001), 재정능력(송하중 외, 2010), 전담 조직(하영수, 2001), 조직과 예산(우양호·이정석, 2010), 중앙정부 지원(우양호·이정석, 2010), 전문기관 협조(송하중 외, 2010; 하영수, 2001), 동기부여(우양호·이정석, 2010), 단체장 특성(우양호·이정석, 2010) 등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객관적 교류건수에는 규모(정명은, 2012), 정보화 수준(이정주 외, 2001), 지방세(이정주 외, 2001)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객관적 교류성과에는 총교류량, 사업체수, 교류기간(이정주·최외출, 200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로 밝혀졌고, 교류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는 전담 조직, 인력 규모, 유관 기관 협력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이정주 외, 2013) 예산, 규모, 단체장 특성 등 계량적으로 측정된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주·최외출, 2003).

셋째,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 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는 국제교류의 확산을 검증한 연구(김미연, 2010; 정명은, 2012)와 연결망분석(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국제교류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김재근·서인석, 2012)이다. 김미연(2010)은 동형화(isomorphism)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확산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성을 획득

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추진하였고, 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의 세 가지 기제(mechanism)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의 확산을 유도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정명은(2012)은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의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이론의 주장을 검증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의 하향 확산과 기초단체 간 수평확산이 모두 발생하였고, 국제교류의 누적건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결정요인은 기초단체의 규모와 관광사업체수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김재근·서인석(2012)은 연결망분석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교류의 중심성은 일본, 중국, 미국이 높고, 기초단체에 비해 광역단체의 관계중심성이 높으며, 자매교류에서 우호교류로 교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2)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 및 연구가설

아프리카를 포함한 특정 지역과의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국제교류 추진의향 영향요인은 교류동기, 인력 전문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성과인식, 기타 요인 등이다

(1) 교류동기

지방정부의 국제교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Arino 외, 1997; Harrison, 2007; Medina, 1996 - 우양호·이정석, 2010: 401에서 재인용). 이러한 국제교류의 동기는 추진단계뿐만 아니라 성과에 이르기까지 국제교류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교류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도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양기호, 2006). 또한 지방정부의 동기부여는 국제교류의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kema & Vermeulen, 1997 - 우양호·이정석, 2010: 401에서 재인용). 국제교류의 동기와 관련된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또는 동기는 주로 중요성과 필요성(김부찬 외, 2007), 필요성과 적절성(이성근·서동수, 2008), 타당성, 명확성, 지속성(우양호·이정석, 2010)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추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공무원의 필요성 인식 결여이고(이정주 외, 20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교류동기가 강할수록 국제교류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우양호·이정석, 2010). 따라서 이상의 이론적 주장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공무원의 교류의향에 적용하면 아래의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교류동기 가설: 국제교류의 동기가 강할수록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 의향이 높을 것이다.

(2) 인력 전문성

지방정부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 전문성, 교류지역의 언어 능력 및 정보 능력 등 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문인력 확충(이성근·서동수, 2008; 이정주 외, 2001; 이주호 외, 2007)과 담당 공무원의 경제·통상 지식 제고(이성근·서동수, 2008), 국제화 마인드 제고(이주호 외, 2007), 언어능력 제고(이성근·서동수, 2008), 정보 및 지식 제고(김부찬 외, 2007) 등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교류 인력 전문성에 관한 주장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경험적 선행연구에서는 인력 전문성에 관한 공무원의 전반적 인식(우양호·이정석, 2010), 경제·통상 지식, 국제화 마인드, 언어능력 등에 대한 인식(이성근·서동수, 2008),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이정주 외, 2001)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인력 전문성을 측정하였다.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기여가 업무수행 시의 가장 주요한 문제이고, 인력의 적절성과 교류성과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주 외, 2013). 또한 경험적 선행연구는 인력의 우수성과 전문성 문항을 포함한 잠재변수인 조직과 예산이 국제교류 수준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우양호·이정석, 2010), 기초단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교류 건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정주 외, 2001).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력 전문성과 국제교류 간의 관계는 아래 가설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인력 전문성 가설: 국제교류 담당 인력 전문성이 높을수록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 의향이 높을 것이다.

(3) 유관 기관과의 협력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중앙정부, 전문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지역대학 등 이해관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해관계기관의 지지, 협력, 참여는 국제교류의 추진동력을 형성하는 촉매역할을 하고,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적이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Harrison, 2007; Samers, 2002).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수준과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tson, 2000). 또한, 국제교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보유한 창의성, 역량,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김부찬 외, 2007).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수준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부찬 외(2007)는 지역주민은 자치단체와 민간(42.3%) 시민단체(23.5%), 지방자치단체(15.3%), 지역대학 및 연구소(15.1%), 지방의회(3.7%) 등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을 국제교류의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정주 외(2013)와 하영수(2001)는 국제교류 전문기관의 협조가 각각 공무

원의 국제교류 성과와 수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양호·이정석(2010)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공무원의 국제교류 실적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아래의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가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수준이 높을수록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 의향이 높을 것이다.

(4) 성과인식

지방정부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추진하면 목적 또는 성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관계자, 특히 공무원의 긍정적 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교류의 성과는 교역량 제고, 지역내 총생산 증대, 재정능력 제고(이정주·최외출, 2003), 업무능력 향상, 사례연구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관심 유도(이정주 외, 2013), 국제협력 인식 제고, 행정 역량 제고 및 후진국 발전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개발,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문화이해 및 사회발전(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등 연구마다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과거에 추진한 국제교류의 성과가 좋으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제교류의 수준이나 활성화 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험적 선행연구는 성과인식과 국제교류 수준 간에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주호 외(2007)는 국제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지리적 근접성이 나빠서'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정주 외(2013)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인식과 국제교류 실태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상의 이론적 주장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국제교류 추진 의향에 적용하면, 국제교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국제교류 추진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성과인식 가설: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 의향이 높을 것이다.

(5) 기타 요인

위에서 검토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객관적 여건도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교류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 및 주관적 인식(우양호·이정석, 2010)과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정주·최외출, 2003) 및 주관적 인식(이정주 외, 201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경험적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규모와 재정능력을 기초단체 수준의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먼저, 지방정부의 규모는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행정능력의 대리(proxy)변수로 활용되었다.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은 지방정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조직적 자원 등 종합적인 정부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은 국제교류의 수준, 활성화,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들이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가능성을 높다(양기호, 2006; 우양호·이정석, 2010; 이갑영, 2005; 이정주·최외출, 2003; Wendt, 1987).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지방정부의 규모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한 지방정부 수준(우양호·이정석, 2010), 국제교류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정주 외, 2013), 공무원수(송하중 외, 2010), 인구(이정주·최외출, 2003; 정명은, 2012) 등으로 측정되었다. 이정주 외(2013)는 국제교류 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성과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명은(2012)은 인구가 많을수록 기초단체의 국제교류 누적건수가 많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지방정부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국제교류의 수준과 활성화 정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우양호·이정석, 2010; 정명은, 2012; Medina, 1996-우양호·이정석, 2010: 399에서 재인용; Watson, 2000).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재정능력은 국제교류 예산(우양호·이정석, 2010) 및 적정 예산 비율(이정주 외, 2013)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또는 국제교류 예산(이정주·최외출(2003), 재정자립도(송하중 외, 2010; 정명은, 2012), 지방세 수입(이정주 외(2001) 등의 객관적 지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송하중 외(2010)는 재정자립도가 국제화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양호·이정석(2010)은 국제교류 예산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인식도 좋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정주·최외출(2003)은 국제교류 예산이 많을수록 공무원이 국제교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교류의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설과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지방정부의 객관적 여건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교류의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가설에 포함된 변수와 기타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은 아래의 함수식 (1)과 같다:

$$INT_i = f(MOT_i, PRO_i, COL_i, PER_i, X_{i,j,k}) \quad (1)$$

여기서 i 는 기초단체 i 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INT 는 교류의향, MOT 는 교류동기, PRO 는 인력 전문성, COL 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PER 은 성과인식, X_k 는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

초단체 수준의 k 개 변수를 각각 의미한다. 기초단체 수준의 변수(X_i)로는 국제교류 수준에 대한 객관적 실적과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에 기초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능력과 규모를 선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기초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기초단체 수준의 객관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의 두 가지 유형이다. 기초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된 종속변수와 잠재변수는 리커트(Likert)형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응답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다소 그렇지 않다(3점), 보통이다(4점), 다소 그렇다(5점), 그렇다(6점),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인 잠재변수별 구체적 설문문항, 기초단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의 측정방법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교류의향과 독립변수인 교류동기, 인력 전문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성과 인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교류의향(*INT*)은 “우리 지자체는 아프리카와 교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q16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둘째, 교류동기(*MOT*)의 측정문항은 김부찬 외(2007), 우양호·이정석(2010), 이성근·서동수(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중요성(q101) 및 필요성(q102)과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 중요성(q161) 및 필요성(q162)의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인력 전문성(*PRO*)의 측정문항은 김부찬 외(2007), 우양호·이정석(2010), 이성근·서동수(2008), 이주호 외(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국제교류 담당 인력의 규모의 적절성(q191), 언어능력(q192), 교류지역 관련 지식(q193), 국제적 마인드(q194), 경제·통상 지식(q195)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유관 기관과의 협력(*COL*)의 측정문항은 김부찬 외(2007), 우양호·이정석(2010), 이주호 외(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공공기관과의 협력(q196), 민간기업과의 협력(q197), 시민단체와의 협력(q198)의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성과인식(*PER*)의 측정문항은 김부찬 외(2007)와 오니시 유타카(20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전반적 지역발전(q801), 지역경제 활성화(q802),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제고(q803),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수준 향상(q804)의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기초단체 수준의 변수인 재정능력과 규모는 기초단체가 공표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국제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주장(Medina, 1996; Watson, 2000)과 이를 증명한 경험적 연구결과(우양호·이정석, 2010)를 반영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재정능력은 2021년 기준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으로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였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규모는 지방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국제교류가 활발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양기

호, 2006; Wendt, 1987)과 이를 확인한 경험적 연구결과(정명은, 2012)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하였으며, 2020년 기준 기초단체의 공무원 현원(명)으로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문항 및 방법	선행연구
교류의향 (INT)	q163. 우리 지자체는 아프리카와 교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	
교류동기 (MOT)	q101. 국제교류의 중용성은 증가하고 있다.	김부찬 외 (2007) 우양호·이정석(2010) 이성근·서동수(2008)
	q102.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q161. 대 아프리카 교류의 중용성은 증가하고 있다.	
	q162. 대 아프리카 교류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인력 전문성 (PRO)	q191. 대 아프리카 교류를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김부찬 외(2007) 우양호·이정석(2010) 이성근·서동수(2008) 이주호 외(2007)
	q192. 대 아프리카 교류를 위해 인력의 언어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q193. 대 아프리카 교류를 위해 인력의 아프리카 관련 지식을 제고해야 한다.	
	q194. 대 아프리카 교류를 위해 인력의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 (COL)	q196. 대 아프리카 교류를 위해 외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김부찬 외 (2007) 우양호·이정석(2010) 이주호 외 (2007)
	q197. 대 아프리카 교류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q198. 대 아프리카 교류를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과인식 (PER)	q801. 우리 지자체의 교류활동은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부찬 외 (2007) 오니시 유타카(2015)
	q802. 우리 지자체의 교류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q803. 우리 지자체의 교류활동은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q804. 우리 지자체의 교류활동은 지자체의 국제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규모	2020년 공무원 현원(명)	
재정능력	2021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천 원)/주민등록인구(명)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분석방법은 국제교류 현황 분석,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분석,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서열로짓 회귀분석 등이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대륙별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국제교류에 대한 기초단체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여부 및 미교류의 이유, 국제교류 일반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의향,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우선 추진 분야,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 주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교류동기(MOT) 등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

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측정의 타당도는 잠재변수와 측정문항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교류의향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인 교류의향(*INT*)의 측정수준이 서열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서열로짓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현황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천연자원, 지속적인 인구증가, 중산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대륙의 소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와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륙별 국제교류 현황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는 총 26건으로 전체 국제교류 1,749건의 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륙별 국제교류는 아시아 1,174건(67.1%), 유럽 253건(14.5%), 북미 207건(11.8%), 남미 58건(3.3%), 대양주 31건(1.8%), 아프리카의 순으로 나타나, 대륙별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가 전체 국제교류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3개 국가에 불과한 북미 대륙이 3위를 차지한 것은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185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대륙별 편중은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우호관계, 교역량 등이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¹⁾

<표 2> 대륙별 국제교류 현황(2020년 12월 기준)

대륙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합계
건수	1,174	253	207	58	31	26	1,749
%	67.1	14.5	11.8	3.3	1.8	1.5	100.0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 2021년 관세청의 대륙별 수출입실적에 의하면,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양주 순으로 교역량이 많다. 이러한 현황은 대륙별 국제교류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현황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는 1995년 5월 25일 경기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가우텡주(Gauteng Province)와 체결한 자매결연이다. 2020년 12월 현재 아프리카와의 국제교류는 총 13개 국가의 26개 지역인데, 경기도의 최초 교류 이후 1990년대 2건, 2000년대 10건, 2010년대 13건이 추가로 체결되었다. 광역단체는 전체 17개 중 8개(47.1%)가 아프리카 지역과 국제교류를 체결하였고, 기초단체는 총 226개 중 7개(3.10%)만이 국제교류를 체결하였다.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이 5개 국가의 5개 지역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단체 중에는 충남 아산시가 3개 국가의 3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국제교류의 유형별로는 우호교류 16건(61.5%)과 자매결연 10건(38.5%)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별로는 광역단체 17건(65.4%)과 기초단체 9건(34.6%)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국제교류가 일부 대륙에 편중된 것과 같이,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도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남아공, 모로코, 모잠비크, 베냉, 세이셸 공화국,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짐바브웨, 케냐, 콩고공화국, 탄자니아의 13개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과 국제교류를 맺고 있다. 그런데 남아공이 7건(26.9%)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집트 3건(11.5%), 모로코,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케냐, 탄자니아 각 2건(7.7%), 나머지 6개 국가 각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별 국제교류 현황은 경제력, 외교력, 도시화 수준이 높은 남아공과 이집트의 지역이 국제교류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현황(2020년 12월 기준)

구분	자치단체	대상 국가	대상 지역	결연일자	유형
광역	서울	남아공	북가우텡주 츠와네시(Tshwane City, Northern Gauteng Province)	'15.04.10	우호
		모잠비크	마푸투주 마푸투시(Maputo City, Maputo Province)	'11.06.13	우호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아디스아바바시(Addis Ababa City, Oromia Region)	'10.09.29	우호
		우간다	캄팔라(Kampala)	'18.09.19	우호
		이집트	카이로주(Cairo Governorate)	'97.04.27	자매
	부산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Western Cape Province)	'00.06.05	자매
		모로코	카사블랑카세타트 지방 카사블랑카시(Casablanca City, Casablanca-Settat Administrative Region)	'11.04.26	자매
	인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주(Alexandria Governorate)	'00.05.17	자매
	광주	베냉	주주 아보메시(Abomey City, Zou Department)	'10.04.01	우호
	대전	남아공	쿠이줄루나탈주 더반시(Durban City, KwaZulu-Natal Province)	'07.09.29	자매
		세이셸	빅토리아시(Victoria City)	'09.10.15	우호
		알제리	알제주 알제시(Algiers City, Algiers Province)	'05.05.04	우호
	경기	남아공	가우텡주(Gauteng Province)	'95.05.25	자매

		음푸말랑가주(Mpumalanga Province)	'00.02.21	우호	
경북	남아공	노스웨스트주(Northwest Province)	'98.09.16	자매	
경남	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주(Mashonaland Central Province)	'14.07.28	우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주 다르에스살람시(Dares Salaam City, Dares Salaam Administrative Region)	'15.02.27	우호	
기초	서울 구로	콩고	니아리주 돌리지시(Dolisie City, Niari Department)	'10.03.24	우호
	경기 수원	모로코	페스메크네스 지방 페즈시(Fez City, Fès-Meknès Administrative Region)	'03.02.21	자매
	경기 파주	남아공	웨스턴케이프타운주 스텔렌보쉬시(Stellenbosch City, Western Cape Province)	'09.09.29	자매
	강원 춘천	에디오피아	오로미아주 아디스아바바시(Addis Ababa City, Oromia Region)	'04.05.02	자매
	충남 아산	케냐	키수무주(Kisumu County)	'17.09.05	우호
		케냐	키수무주 키수무시(Kisumu City, Kisumu County)	'12.07.16	우호
		탄자니아	므완자주 므완자시(Mwanza City, Mwanza Region)	'07.10.22	우호
	충남 천안	짐바브웨	하라레주 하라레시(Harare City, Harare Province)	'16.07.20	우호
	경북 경주	이집트	룩소르주 룩소르시(Luxor City, Luxor Governorate)	'19.03.14	우호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기초단체 공무원의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설문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이고, 조사는 2021년 7월 20일에서 8월 6일까지 18일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회수된 129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1) 교류 현황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여부 및 미교류의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교류 4(3.1%)와 미교류 125(96.9%)로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 현황과 비율이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과 교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필요성 없음 57명(45.6%), 정보 부족 46명(36.8%), 기타 9명(7.2%), 예산 부족 8명(6.4%), 의지 부족 5명(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아프리카 지역과 교

류를 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필요성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교류 여부와 미교류의 이유

응답항목	교류여부			미교류 이유					
	교류	미교류	합계	필요성 없음	정보 부족	예산 부족	의지 부족	기타	합계
빈도	4	125	129	57	46	8	5	9	125
%	3.1	96.9	100	45.6	36.8	6.4	4.0	7.2	100

2) 교류의 중요성

일반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비해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중요성의 중위수(평균)는 6(5.713)점으로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비해 2(1.426)점 높다. 윌콕슨 순위합(Wilcoxon rank sum) 검정(z(p))과 집단 간 평균차이 검정(t(p)) 결과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응답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중위수	평균	윌콕슨 z(p)	t(p)
일반	빈도	1	0	3	13	28	53	31	129	6	5.713	8.498 (0.000)	12.045 (0.000)
	%	0.8	0.0	2.3	10.1	21.7	41.1	24.0	100				
아프리카	빈도	2	12	11	57	24	15	8	129	4	4.287		
	%	1.6	9.3	8.5	44.2	18.6	11.6	6.2	100				

3) 교류의 필요성

일반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의 필요성도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비해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필요성의 중위수(평균)는 6(5.837)점으로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비해 2(1.643)점 높다. 윌콕슨 순위합 검정(z(p))과 집단 간 평균차이 검정(t(p)) 결과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응답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중위수	평균	윌콕슨 z(p)	t(p)
일반	빈도	0	0	1	12	27	56	33	129	6	5.837	9.408 (0.000)	15.337 (0.000)
	%	0.0	0.0	0.8	9.3	20.9	43.4	25.6	100				
아프리카	빈도	2	12	11	61	25	13	5	129	4	4.194		
	%	1.6	9.3	8.5	47.3	19.4	10.1	3.9	100				

4) 교류의향, 교류 분야, 추진 주체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의 의향도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에 대한 응답결과는 ④ 보통이다 44명(34.1%), ② 그렇지 않다 31명(24.0%), ③ 다소 그렇지 않다 24명(18.6%), ① 매우 그렇지 않다와 ⑤ 다소 그렇다 각 11명(8.5%), ⑥ 그렇다 6명(4.7%), ⑦ 매우 그렇다 2명(1.6%)로 나타나 의향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중위수는 3점이고 평균은 3.302점으로 기초단체 공무원의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은 보통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교류의향

응답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중위수	평균
빈도	11	31	24	44	11	6	2	129	3	3.302
%	8.5	24.0	18.6	34.1	8.5	4.7	1.6	100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아래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교류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응답결과는 자매결연 40명(31.0%), 문화·체육 교류 27명(20.9%), 관광교류 23명(17.8%), 경제통상 교류 20명(15.5%), 인적 교류 18명(14.0%)의 순으로 나타나 자매결연과 문화·체육 교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면 전통적인 국제교류 방식인 자매결연과 함께 문화·체육 교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교류 분야

응답항목	자매결연	인적 교류	문화·체육 교류	경제통상 교류	관광교류	무응답	합계
빈도	40	18	27	20	23	1	129
%	31.0	14.0	20.9	15.5	17.8	0.8	100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아래의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국제교류의 주도적 추진 주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단체장이 47명(36.4%)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공무원과 민간기업 각 27명(20.9%), 시민단체 24명(18.6%), 지방의원 2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장 우위의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단체장이라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초단체 공무원은 다양한 행위주체가 국제교류를 추진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추진 주체

응답항목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민간기업	시민단체	무응답	합계
빈도	47	2	27	27	24	2	129
%	36.4	1.6	20.9	20.9	18.6	1.6	100

3. 교류의향의 영향요인

1)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1) 신뢰도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교류동기(MOT)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4~6이고, 국제교류의 필요성(q102)이 평균 5.837로 가장 높으며, 대(對)아프리카 교류의 필요성(q162)이 4.194로 가장 낮다. 인력 전문성(PRO)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5~6이고, 국제적 마인드 제고(q194)가 평균 5.450으로 가장 높으며, 인력 충원(q191)이 4.837로 가장 낮다. 유관 기관과 협력(COL)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5~6이고,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q196)가 평균 5.372로 가장 높으며,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q198)가 4.969로 가장 낮다. 성과인식(PER) 측정문항의 중위수는 4~5이고, 지자체 이미지 제고에 기여(q803)가 평균 4.992로 가장 높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q802)가 4.388로 가장 낮다.

교류동기(MOT), 인력 전문성(PRO), 유관 기관과 협력(COL), 성과인식(PER)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교류 중요성(IMP) 0.810, 인력 전문성(PRO) 0.893, 유관 기관과 협력(COL) 0.876, 성과인식(PER) 0.891로 각각 나타나 모두 통상적 권고수준인 0.6보다 크다. 또한 문항 제거시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전체 알파 계수보다 큰 측정문항은 없다. 이상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잠재변수별로 측정문항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0〉 측정문항의 기술통계 및 신뢰성 분석 결과(N=129)

잠재변수	측정문항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신뢰도계수(α)	
							문항계거	전체
교류동기 (MOT)	q101	6	5.713	1.091	1	7	0.794	0.810
	q102	6	5.837	0.942	3	7	0.772	
	q161	4	4.287	1.318	1	7	0.729	
	q162	4	4.194	1.232	1	7	0.741	
인력 전문성 (PRO)	q191	5	4.837	1.396	1	7	0.890	0.893
	q192	5	5.163	1.310	1	7	0.859	
	q193	6	5.411	1.065	1	7	0.852	
	q194	6	5.450	1.097	1	7	0.858	
	q195	6	5.341	1.121	1	7	0.887	
유관 기관과의 협력 (COL)	q196	6	5.372	1.090	1	7	0.855	0.876
	q197	5	5.217	1.159	1	7	0.748	
	q198	5	4.969	1.274	1	7	0.865	
성과인식 (PER)	q801	4	4.612	1.168	2	7	0.841	0.891
	q802	4	4.388	1.207	1	7	0.873	
	q803	5	4.992	1.135	1	7	0.870	
	q804	5	4.876	1.104	2	7	0.855	

(2) 타당도

① 모형적합도

교류동기(MOT), 인력 전문성(PRO), 유관 기관과 협력(COL), 성과인식(PER)의 측정모형에 대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verg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통계치와 권고수준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²⁾ 기초모형에 비해 수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통계치가 개선되었고, 추가한 오차항 사이의 상관도 9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Chi^2 을 제외한 수정모형의 절대 적합지수가 권장수준보다 좋다. Chi^2 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Chi^2/df 는 1.278로 3보다 작고 RMSEA 및 SRMR도 각각 0.05 및 0.08보다 작다. 또한 상대 적합지수인 CFI 및 TLI도 각각 0.984 및 0.978로 0.95보다 크다. 이러한 모형적합도 통계치는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초모형을 추정한 후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오차항 간 상관을 추가하였다.

〈표 11〉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구분	$Chi^2(p)$	Chi^2/df	RMSEA	SRMR	CFI	TLI
기초모형	407.4(0.000)	4.157(df=98)	0.156	0.096	0.795	0.748
수정모형	108.7(0.043)	1.278(df=85)	0.046	0.080	0.984	0.978
권고수준	$p>0.05$	<3	<0.05	<0.08	>0.95	>0.95

주. df는 자유도, RMSEA는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은 잔차자승평균의 표준화 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는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TLI는 터커-루이스 적합지수(Tucker-Lewis index)를 각각 의미함

② 수렴타당도

요인계수(factor loading),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이하 AVE),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이하 CR) 등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측정문항의 요인계수가 9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수와 측정문항 간의 가설적 관계를 지지한다. 또한 표준화 요인계수가 1보다 크거나 표준화 오차분산이 0보다 작은 Heywood 현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표준화 요인계수는 Hair 외(2010)가 제시한 권고수준인 0.5보다 커서 수렴타당도가 인정되나, 교류동기(MOT)의 대(對)아프리카 교류 중요성(q161)과 필요성(q162)은 권고수준보다 작다. 인력 전문성(PRO), 유관 기관과 협력(COL), 성과인식(PER)의 AVE는 Fornell & Larker(1981)가 제시한 권고수준인 0.5보다 커서 수렴타당도가 우수하지만, 교류동기(MOT)의 AVE는 0.474로 권고수준 보다 작다. 그런데 모든 잠재변수의 CR은 Hair 외(2010)가 제시한 권고수준 0.7보다 커서 수렴타당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수렴타당성을 다소 저해하는 교류동기(MOT)의 측정문항(q161과 q162)을 모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두 측정문항 모두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요인계수와 AVE가 권고수준과 차이가 크지 않으며, CR은 권고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이다.³⁾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129)

잠재변수	측정문항	표준화	비표준화	AVE	CR
		요인계수(표준오차)	요인계수(표준오차)		
교류동기(MOT)	q101	0.8018(0.0462)***	1.0000	0.474	0.764
	q102	0.9336(0.0427)***	1.0052(0.1110)***		

3) 또한 측정문항 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보다는 측정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가 보다 중요하다.

	q161	0.4330(0.0788)***	0.6315(0.1301)***		
	q162	0.4409(0.0781)***	0.6208(0.1259)***		
인력 전문성 (PRO)	q191	0.6178(0.0557)***	1.0000	0.650	0.901
	q192	0.7485(0.0399)***	1.1453(0.1139)***		
	q193	0.9269(0.0201)***	1.1209(0.1355)***		
	q194	0.9173(0.0221)***	1.1421(0.1400)***		
	q195	0.7807(0.0395)***	0.9764(0.1334)***		
유관 기관과의 협력 (COL)	q196	0.9265(0.0306)***	1.0000	0.667	0.855
	q197	0.8357(0.0363)***	0.9644(0.0827)***		
	q198	0.6656(0.0557)***	0.8377(0.1006)***		
성과인식 (PER)	q801	0.7780(0.0407)***	1.0000	0.630	0.870
	q802	0.6495(0.0573)***	0.8524(0.0756)***		
	q803	0.8017(0.0404)***	0.9747(0.0984)***		
	q804	0.9220(0.0299)***	1.1039(0.1012)***		

+ p<0.1, * p<0.05, ** p<0.01, *** p<0.001

③ 판별타당도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판정하기 위한 잠재변수별 AVE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공이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도가 인정된다(Fornell & Larker, 1981). 그런데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이러한 판정기준을 만족하여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교류동기(MOT)의 AVE 0.474는 인력 전문성, 유관 기관과 협력, 성과인식과의 상관계수 제공인 0.094, 0.072, 0.229보다 크다. 둘째, 인력 전문성(PRO)의 AVE 0.650은 교류 중요성, 유관 기관과 협력, 성과인식과의 상관계수 제공인 0.094, 0.620, 0.020보다 크다. 셋째, 유관 기관과 협력(COL)의 AVE 0.667은 교류 중요성, 인력 전문성, 성과인식과의 상관계수 제공인 0.072, 0.620, 0.008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성과인식(PER)의 AVE 0.630은 교류 중요성, 인력 전문성, 유관 기관과 협력과의 상관계수 제공인 0.229, 0.020, 0.008보다 크다.

<표 13> 판별 타당도

잠재변수	통계치	상관계수 제공				AVE
		교류동기 (MOT)	인력 전문성 (PRO)	유관 기관과의 협력 (COL)	성과인식 (PER)	
교류동기(MOT)		1.000				0.474
인력 전문성(PRO)		0.094	1.000			0.650
유관 기관과의 협력(COL)		0.072	0.620	1.000		0.667
성과인식(PER)		0.229	0.020	0.008	1.000	0.630

2) 회귀분석

(1) 기술통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와 자료원이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교류의향(*INT*)은 응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잠재변수인 교류동기(*MOT*), 인력 전문성(*PRO*), 유관 기관과 협력(*COL*), 성과인식(*PER*)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였다. 기초단체 수준의 독립변수인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공무원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4> 변수의 기술통계(N=12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료원
교류의향(<i>INT</i>)		3.3023	1.3613	1.0000	7.0000	설문조사
교류동기(<i>MOT</i>)		-1.9E-9	0.8309	-2.6619	1.2238	설문조사
인력 전문성(<i>PRO</i>)		-1.5E-9	0.8572	-3.8340	1.4103	설문조사
유관 기관과의 협력(<i>COL</i>)		1.1E-9	1.0171	-3.8956	2.0470	설문조사
성과인식(<i>PER</i>)		-1.3E-9	0.8779	-1.9783	1.8555	설문조사
규모	공무원 현원	989.01	581.53	388.00	3995.0	국가통계포털
재정 능력	1인당 자체수입	860.48	352.13	262.43	2047.5	지방재정365
	Ln(1인당 자체수입)	6.6548	0.4879	5.5700	7.6244	지방재정365

(2) 회귀분석 결과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서열로짓 분석의 결과가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 통계치인 Chi^2 가 기초모형과 종합모형 모두에서 신뢰수준 9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독립변수의 설정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진단 결과, 평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이하 VIF)가 기초모형과 종합모형 모두에서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분석결과에는 회귀계수와 함께 승산비(odds ratio)를 제시하였고, 분석결과의 해석은 종합모형의 승산비를 이용하였다.⁴⁾

첫째, 분석결과는 ‘긍정적 교류동기가 교류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교류동기(*MOT*)의 회귀계수는 예측한대로 양(+)⁵⁾의 부호를 지니고 있

4) 승산비(odds ratio)는 독립변수의 1단위 증가가 종속변수의 하위 범주 대비 상위 범주에 해당할 확률을 의미하며, 독립변수의 1단위 증가가 상위 범주에 해당할 확률을 승산비배 만큼 증가(감소)하거나 (승산비-1)*100%((1-승산비)*100%) 만큼 상위 범주를 선택할 확률을 증가(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으나, 90.0% 신뢰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교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류의향이 높을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 및 이를 입증한 경험적 선행연구(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의 결과와 상충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연구대상, 잠재변수의 측정방법, 연구모형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교류동기가 교류의향 결정의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분석결과는 '인력 전문성이 교류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인력 전문성(*PRO*)의 회귀계수는 95.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구가설에서 예측한대로 양(+)의 부호를 지니고 있다. 인력 전문성의 승산비 1.9125는 인력 전문성 요인점수의 1점 증가는 낮은 교류의향 범주 대비 높은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을 91.25%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력 전문성이 교류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주장 및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01, 201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교류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COL*)의 회귀계수는 95.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연구가설과는 반대로 음(-)의 부호를 지니고 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의 승산비 0.5964는 요인점수의 1점 증가는 낮은 교류의향 범주 대비 높은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을 40.36%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의 결과와 상충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렵거나 협력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분석결과는 '성과인식이 교류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성과인식(*PER*)의 회귀계수는 90.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구가설에서 예측한대로 양(+)의 부호를 지니고 있다. 성과인식의 승산비 1.5435는 성과인식 요인점수의 1점 증가는 낮은 교류의향 범주 대비 높은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을 54.35%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제교류의 성과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좋을수록 국제교류 추진 의향이 높을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 및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이주호 외, 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는 규모와 재정능력이 교류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모와 재정능력의 회귀계수는 모두 95.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예측한대로 양(+)의 부호를 지니고 있다. 규모의 승산비 1.0009는 기초단체의 공무원 현원이 1명 증가할 때 낮은 교류의향 범주 대비 높은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을 0.09%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능력의 회귀계수 0.6677은 기초단체의 1인당 자체수입이 1% 증가할 때 낮은 교류의향 범주 대비 높은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을 0.6677%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⁵⁾ 이리

5) 1인당 자체수입(log)과 종속변수(log(승산))가 모두 자연대수를 취하고 있으므로 회귀계수는 1인당 자

한 결과는 규모가 크고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교류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송하중 외, 2010; 정명은, 201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15〉 서열로짓 분석결과(N=129)

변수	모형	기초			종합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류의 중요성(<i>IMP</i>)		1.2585	0.2300	(0.2845)	1.2044	0.1860	(0.2886)
인력 전문성(<i>PRO</i>)		1.8283	0.6034	(0.2629)*	1.9125	0.6484	(0.2877)*
유관 기관과의 협력(<i>COL</i>)		0.6441	-0.4398	(0.2144)*	0.5964	-0.5168	(0.2196)*
성과인식(<i>PER</i>)		1.6477	0.4994	(0.2222)*	1.5435	0.4341	(0.2280)+
규모: 공무원 현원					1.0009	0.0009	(0.0004)*
재정능력: Ln(1인당 자체수입)					1.9497	0.6677	(0.3338)*
$Chi^2(p)$			18.624	(0.0009)		24.809	(0.0004)
Pseudo R^2			0.0415			0.0650	
VIF			1.9050			1.6383	

+ p<0.1, * p<0.05, ** p<0.01, *** p<0.001

V. 결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 현황 분석,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조사,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서열로짓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국제교류 현황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매우 저조한 아프리카와의 국제교류도 남아공과 이집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고, 교류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필요성이 없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조사 결과는 아프리카와는 자매결연과 문화·체육교류를 우선 추진해야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는 잠재변수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판별타

체수입의 1% 변화에 의한 승산의 %변화를 나타낸다.

당도가 우수하고 수렴타당도는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서열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인력 전문성과 성과인식이 교류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규모와 재정능력도 예측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교류동기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가설과 달리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국제교류 미흡 지역에 대한 분석, 주관적 인식조사와 객관적 통계자료의 동시 활용, 선행연구가 간과한 교류의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분석하였다. 국제교류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교류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하고 교류 다변화를 주장하였지만(성태규·이재현, 2007; 이정주·최외출, 2003; 이정주 외, 2013; 이주호 외, 2007; 하혜영·이정진, 20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국제교류의 1.5%에 불과하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와 객관적 통계자료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는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 자료(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 또는 객관적 통계자료(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를 배타적으로 활용하였고, 양자를 동시에 활용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된 교류동기, 인력 전문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성과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된 규모와 재정능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고, 인력 전문성과 성과인식과 함께 규모와 재정능력도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셋째, 본 연구는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교류의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는 객관적 교류 실적(이정주 외, 2001; 정명은, 2012)과 교류수준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우양호·이정석, 2010; 이정주 외, 2013; 하영수, 2001)은 분석하였지만 교류의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본 연구는 과거에 발생한 교류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발생가능성과 관련된 교류의향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제교류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류실적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를 추진 또는 활성화하는데 실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

원의 인식조사는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보통 수준이나, 교류의향은 보통 이하이고, 필요성 없음과 정보부족이 미교류의 주요 원인이며, 단체장과 함께 공무원,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을 주요 추진주체로 제시했다. 또한 서열로짓 회귀분석은 인력 전문성과 성과인식이 좋을수록 교류의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아프리카와의 국제교류를 추진 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류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과 인력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나 제안은 아래에 제시한 한계를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후속 연구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 또는 보완하여 지방정부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는 전체 226개 기초단체 중 129(57.1%)개 기초단체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 응답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응답률을 제고하여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초단체 수준의 통제변수로 규모와 재정능력만을 활용하여 역시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선행연구에서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으로 제기된 사업체수, 2차 및 3차 산업의 비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단체장의 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인 교류의향만을 분석하여 국제교류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교류 실적을 분석하여 국제교류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산출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자료인 기초단체 수준의 통계자료와 질적 자료인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을 모두 이용하였지만, 분석방법은 전적으로 계량적 방법만을 활용하였다. 후속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과 국제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 등을 통해 추진주체, 목적, 방식, 교류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 계량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10.
 검색일 2021.12.17.
- 권경득, (1999),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국제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 39: 52-80.
- 김미연, (201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16-83.
- 김부찬·양덕순·고승한, (2007), 「지방외교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김재근·서인석,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409-438.
- 김지희, (2008), 서유럽의 지방외교: 영국, 프랑스 지자체의 국제협력현황과 대응전략, 『비교민주주의연구』, 4(2): 87-106.
- 김판석, (200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5-31.
- 김형수, (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18(특집): 41-53.
- 김형수, (2021),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 개정 지방자치법과 공공외교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6(3): 75-95.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 검색일 2021.12.17.
- 박용길, (2003),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강원도의 국제교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2(2): 119-145.
- 성태규·이재현, (2007),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실태 및 활성화 연구. 『사회과학연구』, 18: 17-42.
- 송두범, (2004), 충청남도 자치단체의 국제자매결연사업 실태 및 과제. 『열린충남』, 29: 1-11.
- 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1): 73-97.
- 양기호, (2006),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67-85.
- 오니시 유타카, (2015), 한일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전개: 자매도시 결연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3(1): 151-182.
- 우양호, (2012), 월경한 해양도시권 권역에서의 국제교류와 성공조건: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국경경제권' 사례. 『지방정부연구』, 16(3): 31-50.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1.
- 유병선, (2018),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이갑영, (200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평가와 전략: 문제점과 개선점. 『지방행정』, 54: 41-50.
- 이성근·서동수, (200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혁신논집』, 3(3): 123-144.
- 이우권, (2009), 지방정부 국제화와 국회예산정책처 기능: 지방정부 국제교류 현황분석과 정책대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379-397.
- 이정주·박희방·최외출, (2001),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4(2): 143-169.
- 이정주·최외출, (200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145-162.
- 이정주·최외출·김한양, (20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분석 -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325-348.
- 이주호·강은방·유건상·이재은, (2007),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9(1): 19-44.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5),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서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병관, (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충남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논단』,

46: 40-56.

- 정명은, (2012),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241-27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11.12.
- 하영수, (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실태분석과 함의. 「지방정부연구」, 5(2): 117-134.
- 하혜영·이정진, (2020),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72: 3-6.
- 행정안전부 재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검색일 2021. 11.12.
- Arino, A., Abramov, M., Skorobogatykh, I., Rykounina, I., & Vila, J. (1997), Partner Selection and Trust Building in West European-Russian Joint Venture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s*, 27(1): 19-37.
- Barkema, H. G. & Vermeulen, F. (1997), What Differences in the Cultural Backgrounds of Partners are Detrimental for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8(4): 845-86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F., Celsi, M., Ortinau, D. J., & Bush, R. P. (2010), *Essentials of Marketing Research*. NY: McGraw-Hill/Irwin.
- Harrison, J. (2007), From Competitive Regions to Competitive City-Regions: A New Orthodoxy, But Some Old Mistak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7(3): 311-332.
- Martinez, O. J. (1994), *Border People: Life and Society in the U.S.-Mexico Borderlands*.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Medina, N. (1996), A Role for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as Agent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Regional Economic Groups: The Case of Latin America.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Samers, M. (2002), Immigration and the Global City Hypothesis: Towards an Alternative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2): 252-266.
- Watson, D. (2000), The International Resources Cities Program: Building Capacity in Bulgarian Local Govern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5): 457-463.
- Wendt, A. (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335-370.

[저자소개]

李 錫 煥 뉴저지주립대(Rutgers)에서 Tax Competition among Governments and the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Local Governments in New Jersey(2009)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정책평가, 연구방법론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Perceptions of Soc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and Early Job Seekers' Intentions to Apply(2021), 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2021),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2021) 등이 있다 (lshufo@hanyang.ac.kr).

金 星 洙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 The Role of the Middle Class in Democratic Transition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래문화융합연구센터장 과 유럽아프리카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정치(CP)이론, 정치경제(PE)인식론, 공공외교분석론(PDA)이다. 최근 저서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2022) 그리고 논문으로는 The Effects of Business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Korean Companies on Market Satisfaction: The Case of the African Market(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지 인식 분석(2022),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사이에서(2022) 등이 있다(skim14@hanyang.ac.kr).

논문투고일자: 2022. 5. 20. / 심사외뢰일자: 2022. 6. 3.(초심) / 게재확정일자: 2022. 6. 26.

Abstract

Factors Affecting Korean Municipalities' Intention for Public Diplomacy with Africa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Lee, Sock Hwan · Kim, Sungs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up previous studies by empirically test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public diplomacy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Africa.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objective data of Korean local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surveyed municipal officials' perceptions on the public diplomacy, evaluat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latent variables in the research model, and estimated the model using the ordinal logit regression. First, the results of the objective data analysis reveal that public diploma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concentrates in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public diplomacy with Africa also concentrates in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Arab Republic of Egypt. Second, the results of the municipal officials survey show that the intention of public diplomacy with the African local governments is low, that the public diplomacy should be promoted first is sisterhood ties or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and that public officials, private companies, and civic groups should cooperate with the head of municipality to promote the public diplomacy with African local governments. Third,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ggest the outstanding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s well as satisfactory convergenc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Lastly, the results of the ordinal logit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public official's positive perception on the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s and the outcome of public diplomacy, and the size and financial capacity of municip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 of public diplomacy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Africa.

Key words : Public Diplomacy, Africa, Inten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